

[한경 인터뷰] 사공일 "정부지출, 경기 불쏘시개에 그쳐야...재정악화땨 외환위기로 직결"

입력 2019-11-20 16:58 수정 2019-11-21 01:46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이 20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지낸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마리오 드라기 전 ECB 총재, 폴 볼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 스탠퍼드대 교수, 프랑스 문명비평가 기 소르망

이들 세계적 명망가·석학과 모두 친분을 쌓은 인물을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다. 지역·언어적 장벽 때문이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은 이 같은 장벽을 넘어섰다. 전화 한 통으로 이들과 약속을 잡고 한국으로 초대하기도 한다. 주변 측근조차 그의 인맥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가늠하지 못한다. 이처럼 거미줄 인맥을 쌓은 배경에 대해 묻자 사공 명예이사장은 새로 구입한 최신형 스마트폰인 아이폰11과 세계 각국의 유명 서적으로 가득 찬 책장을 가리켰다. 그는 하루도